

무더위 날릴 오싹한 미라가 온다

‘복원된 각국 미라’ 광주과학관서 전시 ... 내달 3~29일 건조·냉동·방부제 미라 등 제작 과정·연구성과도 소개



지난해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의대 연구진이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5300년간 묻혀 있다가 1991년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국경 지대 알프스 빙하에서 발견된 동결 상태 미라의 DNA와 같은 DNA를 가진 남성 19명이 오스트리아 티롤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당시 “유전자기 일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지만 인접한 스위스 엔가디네와 이탈리아 남티롤 지역에서 같은 DNA를 가진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견된 장소의 이름을 따 ‘아이스맨 외치’로 불리는 이 미라는 유럽 최고(最古) 미라로, 고고학계의 핫이슈다. 특히 독일인 등산객 부부에 의해 발견될 당시 냉동 건조되어 피부와 내장은 물론 혈액 속의 DNA까지 완벽하게 보존된 외치는 조난당한 등산객으로 오인될 정도로 뼈와 피부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현재까지도 과학자들은 외치가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과 의복, 질병 등은 물론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혀내려 하고 있다.

실물은 아니지만 실제와 똑같이 복원된 외치 등 전세계 각국 미라가 광주에서 전시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국립광주과학관, 경기도 전곡선사박물관은 공동으로 6월3~29일 국립광주과학관 기획전시실에서 ‘올 여름 미라와 함께’를 주제로 기획전전을 연다. 미라는 썩지 않고 건

조되어 원래 상태에 가까운 모습으로 남아 있는 인간이나 동물의 시체를 말한다. 사하라 지방과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는 자연상태에서 그대로 만들어진 것들이 발견되고, 이집트 등에서는 방부제를 사용해 만든 인공적인 것이 주로 나온다.

미라는 과거 사람들의 건강 및 질병 상태, 법의학적 기초자료, 인구학적 패턴, 영향상태를 포함한 건강상태, 노동 강도와 같은 행위패턴 등 사회적으로도 필요 불가결한 소중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 큰 연구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미라를 과학적인 시각으로 소개하고, 세계 각국에서 발견된 미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세계에서 발견된 미라 중 ▲미라가 생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건조 미라 ▲방부제에 시신을 썩지 않게 처리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었던 이집트 미라 ▲시신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기후에서 보존되는 냉동 미라 등 제작 과정이 소개된다. 또 조선시대 회곽묘(灰槨墓·내부가 회벽인 묘)의 제작과 동물 실험을 통해 밝혀진 우리나라 미라의 형성 과정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지금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수행한 고인골(古人骨) 관련 문화유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과 우리나라 미라 모형, 이집트 미라 모형, 아이스맨 외치 복원품과 유물 복원품을 직접 볼 수 있다. 관람료 2000원(상설전 별도).

문의 062-960-621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아이스맨 외치 복원품(왼쪽)과 동물미라 인조 모형.

미래 예술가들 잔치

광주예고 ‘31회 예향제’ 4일까지 문예회관 등서



광주예고가 제31회 예향제를 개최한다. 공연부 행사는 6월2~4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된다. 2일 오후 7시에는 무용과 학생들이 한국무용, 현대무용, 클래식 발레, 한국창작무용, 모던발레 등을 무대에 올린다. 3일에는 국악과 학생들이 정악, 가야금병창, 독주, 창극, 판굿, 관현악 등 흥과 신명이 묻어 나오는 우리 가락을 연주하고 노래하며, 마지막 날인 4일에는 음악과 학생들이 관현악 합주, 성악협연, 피아노 협연, 피아노 5중주, 여성 중창, 금관 5중주, 바이올린 협연, 트럼본 협연 등 오케스트

라의 아름다운 선율과 고운 목소리로 하모니를 만들 예정이다.

30일부터 6월4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는 한국화과와 미술과 학생들의 꿈과 열정을 담은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 오픈은 30일 오후 4시다.

광주예고 박정진 교장은 “창의적인 예술가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을 견고 있는 학생들의 무대에 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문의 062-520-8840, 880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꽃바람 불러 좋은 날

전남대병원 갤러리서 내달 2~29일 정상섭람



▶‘꽃바람’

화폭 속 이미지들은 극단적인 원근대비로 동화 같은 조형성을 만들어낸다. 캔버스에 꽃들을 가득 채워놓고 자잘하게 등장시키는 사물들은 동화 속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

서양화가 정상섭씨가 6월2~29일 전남대병원 갤러리에 초대돼 ‘꽃바람 불러 좋은 날’을 주제로 스무 번째 개인전을 연다.

작가 작품의 주된 주제는 화폭을 가득 채운 고목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처럼 비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노닐고 있는 새와 오리, 그리고 정자, 달과 별 등 작가의

꿈과 기억 속 심상들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보여준다.

작품 하나가 자그마한 우주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작가의 시선이 단순한 사물에서 옮겨져 무한하게 펼쳐지는 조화를 비추고 있다.

조선대 미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한 정씨는 광주시미술대전, 대구미술대전, 호남예술제 등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문의 062-220-509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문화누리카드로 장보는 날

내일 총장로 우체국 앞서

매일 마지막 토요일 진행되는 ‘문화누리카드로 장보는 날’이 31일 낮 12시부터 총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열린다.

‘문화누리카드로 장보는 날’은 카드 사용이 어려운 문화카드 소지자들을 가맹점이 집중된 지역으로 안내해 카드 사용 정보와 식사권을 제공,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카드 소지자들은 총장로 주변 서점이나 극장, 음반점, 갤러리 등 다양한 가맹점을 안내받고 자

유롭게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이날 행사에는 무등산자락 길잡이 협동조합이 진행하는 도예체험에 참가하는 ‘체험하는 날’과 기본종은 극장에서 연극 관람 후 배우들을 직접 만나는 ‘만나보는 날’도 공동 진행된다. 두 프로그램 참여자 중 각각 선착순 25명, 30명에게는 동반 1인의 프로그램비와 7000원 상당의 간식비가 지원된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지역 가맹점과 협력으로 문화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장보는 날을 비롯, 여행가는 날, 초대하는 날, 체험하는 날, 만나보는 날, 배송받는 날, 혜택받는 날 등 7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062-670-7912~6.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제30회 무등미술대전 개최

광주·전남발전협, 내달 12일 접수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가 제30회 무등미술대전을 개최한다.

작품 접수일은 6월12일 하루로 부문은 한국화, 문인화, 양화, 수채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사진이다.

작품 접수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북, 제주, 광주 등에 있는 접수·반출처에서 가능하다. 단 조각 부문 접수는 광주비엔날레전시실에서

만 진행하고, 문인화, 서예, 사진은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심사는 6월16일, 합격자 발표는 6월17일이다. 출품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출품료는 한 점당 5만원이다.

각 부문별 대상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상장이 수여되고, 2명씩 선정하는 각 부문별 우수상에게는 상금 50만원과 상장이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발전협의회 카페(http://cafe.daum.net/gjpowe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233-192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